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민희홍¹, 이해진^{2*}

¹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²동부산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Influence Factors of Positive Think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School Adjustment of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Hee-Hong Min¹, Hye-Jin Lee^{2*}

¹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pusa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규명하며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이 학교생활 적응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 지역의 치위생(학)과 신입생 213명을 대상으로 임의추출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긍정적 사고, 진로체험 경험 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설명력은 47.7%이었다.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긍정적 사고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토대로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한 기초자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긍정적 사고, 진로체험 경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치위생(학)과 신입생

Abstract In this study, the positive think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of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identified.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was identified an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investigate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October 1 to October 21, 2019 on 213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in Gyeonggi-do, Chungcheong-do, Jeolla-do, and Gyeongsang-do regions. According to the study,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school adjustment was in the order of academic self-efficacy, positive thinking, and career program experience,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were academic self-efficacy, and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was 47.7%. Since this study has been investigated and conducted on some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 results, subsequent studies will require continuous study of various variables for positive thinking and academic self-efficiency to school adjustment. However, based o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hat it can be used as data to supplement the prior study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and by presenting factors related to the school adjustment of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it is thought that it became basic data that confirme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the school adjustment program

Key Words : Positive thinking, Career program experience, Academic self-efficacy, School adjustment,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Hye-Jin Lee(onlyhelena@hanmail.net)

1. 서론

생애 주기적으로 대학생들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의 시작단계로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고등학교 때의 입시 위주의 교육과 부모와 학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 사고와 책임을 요구받게 된다[1].

그러나, 대학 신입생들은 가치관이나 자아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고등학교 시기와 다른 새롭고 변화된 환경에 봉착하고, 본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2]. 그러므로 신입생부터 진로 선택과 관련된 학업적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대학생활 적응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3], 대학생활의 부적응은 학업중단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학생활 부적응을 예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은 치위생학의 학문적 특수성과 학과의 교육과정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와 치과임상 현장실습 위주로 이루어져 신입생부터 학업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호소하거나 적성이 맞지 않아 대학생활 적응에 결핍돌이 되기도 한다. 치위생(학)과 입학 동기에 대한 김 등[4]의 연구에 의하면 높은 취업률 때문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대부분 일 만큼 입학동기가 본인의 적성이나 직업에 대한 성찰 없이 결정을 한 경우가 많아 대학생활의 부적응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본인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긍정적 사고는 주관적 행복감에도 관련성이 있어[5],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우울과 같은 부정적 증상에 직면했을 때 자기조절능력과 대처능력을 증가시켜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게도 한다[6]. 또한, 김과 김[7]은 긍정적 사고 정서가 높은 경우 스트레스 상황을 잘 대처하고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잘 할 뿐만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학습 과제를 학습자의 지각된 신념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과제를 지속하게 되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게 된다[8].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 및 학업 성취감과 관련성이 있어,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준다[9].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 개인의 심리적 요인 중 하나

인 주관적 충족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10], 충족정도가 낮을 경우 학업에도 영향을 주며, 교우와의 관계등과 같은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한다[11]. 이에 대학생들은 신입생들의 부적응으로 인한 탈락을 막기 위하여 학생코칭센터 운영, 학생 면담 및 학부모면담, 자아성찰 프로그램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학에서의 신입생 탈락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12]. 치위생(학)과에서도 신입생의 탈락을 막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이전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13], 인성 및 대인관계[14]와 관련된 연구는 있었으나,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에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규명하며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 지역의 치위생(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 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 시 개인비밀 보장과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내용에 동의한 대상자만을 조사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단 및 설문참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version 3.1.9.2 program을 이용하였고,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은 .95, 예측변수(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긍정적 사고, 일반적 특성)를 10개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는 172명이고, 최종 분석은 213명을 하였다.

2.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인 특성 7문항, 긍정적 사고 18문

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28문항, 학교생활 적응 20문항으로 총 7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징은 학년, 학점, 진로체험 경험, 종교,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능력, 학과선택 동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긍정적 사고는 김 등[15]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송[16]의 도구로서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생활 적응 20문항은 김[17]이 개발한 학교생활 적응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긍정적 사고, 0.863, 학업적 자기효능감 0.639, 학교생활 적응은 0.749로 도구의 신뢰도는 모두 0.6이상이었다.

2.3 자료분석

IBM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alpha = 0.05$ 을 유의수준으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하였으며,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일반적 인 특성에 따른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 하였으며, 분석 후 다중비교는 Scheffe'로 실시하였다.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변수 간의 상관성은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 별로는 18세가 30%, 19세가 51.7%, 20세 이상이 18.3%였으며, 학점은 2.9이하가 46.5%, 3.0-4.0사이 가 42.7%, 4.1이상이 10.8%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체 험 경험유무는 경험자가 63.4%, 비경험자가 36.6%였 으며, 종교 유무는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26.8%였으며,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73.2%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는 만족과 보통이 각각 43.7%, 불만족은 12.6%였고. 대인관계는 보통이 51.6%, 만족이 46.0%로 나타났으

며, 전공선택 동기는 취업때문이 48.9%, 자신이 선택이 27.7%, 권유가 13.6%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s	N	%
Year	18	64	30.0
	19	110	51.7
	≥20	39	18.3
School work credit	<2.9	99	46.5
	3.0-4.0	91	42.7
	≥4.1	23	10.8
Career program experience	Yes	135	63.4
	No	78	36.6
Religion	Yes	57	26.8
	No	156	73.2
Satisfaction in major	Dissatisfaction	27	12.6
	Average	93	43.7
	Satisfaction	93	43.7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satisfaction	5	2.4
	Average	110	51.6
	Satisfaction	98	46.0
Application motivation	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	19	8.9
	Employment	104	48.9
	Self motivation	59	27.7
	Inducement	29	13.6
	Etc	2	0.9
	Total	213	100.0

3.2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정도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Table 2와 같다. 5점을 기준으로 긍정적 사고는 3.41점이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17점이었으며, 학교생활 적응은 3.21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N=213)

Characteristics	Minimum	Maximum	Mean ±SD	Cronbach's α
Positive thinking	2.11	5.00	3.41 ±0.45	0.863
Academic self-efficacy	2.45	4.25	3.17 ±0.29	0.639
School adjustment	2.05	4.37	3.21 ±0.36	0.749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긍정적 사고는 학점($p=0.036$), 전공만족도($p=0.001$), 대인관계($p=0.001$), 전공선택($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점은 '4.1이상'일 때,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만족하다'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공 선택은 '자신이 선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점($p=0.011$), 전공만족도($p=0.001$), 대인관계($p=0.001$), 전공선택($p=0.01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점은 '4.1이상'일 때,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만족하다'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은 학점($p=0.010$), 전공만족도($p=0.028$), 대인관계($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점은 '4.1이상'일 때,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만족하다'에서 높게 나타났다.

3.4 학교생활 적응,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학교생활 적응은 긍정적 사고($r=0.583$), 학업적 자기효능감($r=0.633$)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긍정적 사고($r=0.581$)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Correlations of school adjustment, positive thinking, academic self-efficacy

Variables	School adjustment	Positive thinking	Academic self-efficacy
School adjustment	1		
Positive thinking	0.583**	1	
Academic self-efficacy	0.633**	0.581**	1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3. Positive think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s	N	Positive thinking	t or F (p)	Academic self-efficacy	t or F (p)	School adjustment	t or F (p)
Year	18	64	3.38±0.52	0.239 (0.788)	3.19±0.34	0.120 (0.887)	3.14±0.27	0.744 (0.476)
	19	110	3.43±0.42		3.22±0.37		3.18±0.30	
	≥20	39	3.40±0.41		3.22±0.40		3.21±0.30	
School work credit	<2.9	99	3.32±0.46 ^a	3.385 (0.036)	3.14±0.37 ^a	4.631 (0.011)	3.12±0.30 ^a	4.711 (0.010)
	3.0-4.0	91	3.47±0.41 ^{ab}		3.24±0.33 ^{ab}		3.19±0.28 ^{ab}	
	≥4.1	23	3.52±0.49 ^b		3.38±0.43 ^b		3.32±0.29 ^b	
Career program experience	Yes	135	3.41±0.46	0.159 (0.874)	3.21±0.35	0.106 (0.916)	3.15±0.26	-1.384 (0.169)
	No	78	3.40±0.43		3.21±0.39		3.21±0.33	
Religion	Yes	57	3.41±0.49	0.038 (0.969)	3.27±0.40	1.347 (0.179)	3.19±0.30	0.583 (0.561)
	No	156	3.41±0.43		3.19±0.35		3.17±0.29	
Satisfaction in major	Dissatisfaction	27	3.02±0.54 ^a	21.173 (0.001)	3.01±0.40 ^a	11.296 (0.001)	3.10±0.27 ^a	3.638 (0.028)
	Average	93	3.35±0.37 ^b		3.15±0.37 ^a		3.14±0.32 ^{ab}	
	Satisfaction	93	3.58±0.40 ^c		3.33±0.31 ^b		3.23±0.26 ^b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satisfaction	5	2.92±0.50 ^a	18.110 (0.001)	3.03±0.70 ^a	8.297 (0.001)	2.89±0.38 ^a	10.926 (0.001)
	Average	110	3.27±0.42 ^{ab}		3.13±0.36 ^{ab}		3.11±0.27 ^{ab}	
	Satisfaction	98	3.58±0.41 ^b		3.32±0.33 ^b		3.26±0.28 ^b	
Application motivation	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	19	3.19±0.46 ^a	7.259 (0.001)	3.19±0.37 ^{ab}	3.629 (0.014)	3.13±0.32	0.908 (0.438)
	Employment	104	3.40±0.40 ^{ab}		3.20±0.35 ^{ab}		3.17±0.29	
	Self motivation	59	3.59±0.43 ^b		3.32±0.29 ^b		3.22±0.30	
	Inducement	31	3.21±0.49 ^a		3.07±0.47 ^a		3.13±0.26	

*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Schffé) for three or more groups
^{a,b,c}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3.5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Table 5와 같다. 학교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은 더미 변수로 전환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준 독립변수는 긍정적 사고($t=5.341, p=0.001$), 학업적 자기효능감($t=6.594, p=0.001$), 진로체험 경험($t=2.388, p=0.018$)이 학교생활적응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900으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Tolerance(공차한계)는 1.0이하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F=14.054, p<0.001$), VIF(다중공선성)은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치위생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0.425$), 긍정적 사고($\beta=0.364$), 진로지도 체험($\beta=-0.124$)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설명력은 47.7%였다.

4. 고찰

대학 신입생으로 지내는 1년은 대학 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여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이 학교생활 적응도를 높이고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는 만족과 보통이 각각 43.7%로 김 등[4]의 연구에서 만족이 82.6%였던 것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학과선택 동기는 취업 때문이 48.9%로 나타나 김 등[4]의 68.7%, 김 [6]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52.1%보다는 낮았으나, 보건의계열의 높은 취업률로 인해 학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스스로 적성에 맞다 생각하여 선택한 경우는 27.7%로 조사대상자들은 적성보다는 취업이 잘되는 치위생(학)과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school adjustment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1.234	0.168		7.341	0.001		
Positive thinking	0.238	0.045	0.364	5.341	0.001	0.545	1.835
Academic self-efficacy	0.343	0.052	0.425	6.594	0.001	0.607	1.648
Age(18/19) [†]	-0.002	0.035	-0.003	-0.051	0.960	0.830	1.205
Age(19/≥20) [†]	0.060	0.041	0.080	1.467	0.144	0.846	1.182
Career program experience(yes/no) [†]	0.074	0.031	0.124	2.388	0.018	0.936	1.069
School work credit(≥2.9/3.0-4.0) [†]	-0.017	0.032	-0.029	-0.517	0.606	0.812	1.232
School work credit(3.0-4.0/≥4.1) [†]	0.089	0.052	0.097	1.715	0.088	0.794	1.260
Satisfaction in major (dissatisfaction/average) [†]	0.070	0.050	0.080	1.393	0.165	0.772	1.296
Satisfaction in major (average/satisfaction) [†]	-0.041	0.034	-0.071	-1.202	0.231	0.727	1.376
Interpersonal relationship (average/satisfaction) [†]	0.048	0.033	0.084	1.467	0.144	0.766	1.306
Religion(yes/no) [†]	-0.019	0.034	-0.030	-0.571	0.569	0.934	1.071
Application motivation(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employment) [†]	-0.011	0.055	-0.019	-0.202	0.840	0.278	3.598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self motivation) [†]	-0.043	0.060	-0.068	-0.720	0.472	0.284	3.524
Application motivation (self motivation/inducement) [†]	0.046	0.064	0.056	0.723	0.471	0.425	2.353

R=0.513, Adjusted R²=0.477, F=14.504($p<0.001$), Durbin-Watson: 1.900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t $\alpha=0.05$, [†]Dummy variable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5점을 기준으로 긍정적 사고는 평균 3.41점으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긍정적 사고 정도는 중간이상 수준이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김[6]의 3.59점, 전[18]의 3.55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의 학교적응 및 과도한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요인이 되리라 생각되며, 긍정적 사고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과제 의 난이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으로 분류되는 3개의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17점이었고,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남과 최[19]의 연구 2.95점보다는 높았으나, 정[20]의 연구 3.53점보다는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비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21]의 연구에서의 3.80점보다 낮았으며, 김 등[22]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3.21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려운 과제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경우 성공적으로 수행할 학업수행 능력이 높은 편은 아니므로, 학습자에게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수업인 액션러닝이나 플립러닝과 같은 교수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생활 적응은 3.21점으로 나타나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천 등[14]의 3.33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23]의 2.91점보다는 높았으나, 비보건계열 대상의 이[21]의 연구 3.94점보다는 낮았다. 본 연구의 학교생활 적응도는 높은 편이 아니므로 대학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학습전략 방안으로 이전 연구들[24-26]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학 신입생들이 친구와 선배 및 교수등과의 관계 맺음에 효과적인 접근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위생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는 학점과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점이 '4.1이상'일 때,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만족하다'에서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과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학생이 긍정적 사고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천 등[14]은 학교생활 적응과 인

성 및 대인관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하였으며, 김[23]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6]은 긍정적 사고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고,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일 때와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 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학교생활 적응과 관계되는 요인이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긍정적 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준 독립변수는 긍정적 사고($t=5.341, p=0.001$), 학업적 자기효능감($t=6.594, p=0.001$), 진로체험 경험($t=2.388, p=0.018$)이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김[27]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 요인을 셸프리더십과 감성지능이라고 했고, 송[16]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라 했으며, 김[28]은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 긍정적 사고가 학교생활 적응에 주요변인으로 검증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코칭 및 학습법 특강 등을 통한 학생 본인의 학습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업수행 능력을 높여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학과 및 대학 차원에서의 지원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일부 치위생(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긍정적 사고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토대로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한 기초자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련성을 파악하며,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 분석을 통하여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적 사고는 3.41점이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17점이었으며, 학교생활 적응은 3.21점이었다.
2. 학교생활 적응은 학점, 전공만족도,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0$), 학점은 '4.1이상'일 때,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만족하다'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긍정적 사고($r=0.583$), 학업적 자기효능감($r=0.633$)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긍정적 사고($r=0.581$)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긍정적 사고, 진로지도 체험 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설명력은 47.7%이었다

이에 학업적 자기효능감, 긍정적 사고가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학과 및 대학 차원의 신입생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사고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규수업과 비교과수업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Y. J. Jung & S. L. Hong. (2012). Mediating effects of school life satisfaction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s on the 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3)*, 239-257.

[2] M. J. Park & D. W. Choi. (2017). The convergence effect of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freshmen of nursing department on learning motivatio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339-49.
DOI : 10.14400/JDC.2017.15.4.339

[3] T. H. Jung. (2005). Effects of self leadership education o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2(1)*, 223-48.

[4] C. H. Kim, J. H. Kim & S. H. Hong. (2011). Comparison of career identity and professionalism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educational system.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 327-334.

[5] S. O. Kim. (2017).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positive thinking on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435-444.
DOI : 10.14400/JDC.2017.15.12.435

[6] S. O. Kim. (2016). Influence of positive thinking and subjective happiness on school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0(3)*, 365-404.
DOI : 10.5932/JKPHN.2016.30.3.395

[7] S. O. Kim & S. M. Kim. (2016). Predictors of positive thinking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3)*, 1717-1727.

[8] S. J. Han. (2013).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5(50)*, 559-566.
DOI : 10.7475/kjan.2013.25.5.559

[9] A. Y. Kim & I. Y. Park. (2001).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9(1)*, 95-123.

[10] Y. S. Lee, S. H. Park & J. K. Kim. (2014). Nursing students' self-r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4(6)*, 229-240.
DOI : 10.5392/JKCA.2014.14.06.229

[11] Y. J. Oh. (2017).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307-317.
DOI : 10.14400/JDC.2017.15.7.307

[12] J. Y. Song. (2017).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freshmen's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2)*, 335-345.
DOI : 10.5762/KAIS.2017.18.12.335

- [13] H. J. Choi & M. S. Lee. (2013). The associations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among dental hygiene freshmen.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39(2), 129-138
DOI : 10.5762/KAIS.2016.17.11.104
- [14] H. W. Cheon, M. S. Yu & M. J. Jun. (2018). The Converged Influence of character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49-57.
DOI : 10.22156/CS4SMB.2018.8.6.049
- [15] J. K. Kim, Y. H. Oh, G. S. Oh, D. W. Suh, Y. C. Shi & J. Y. Jung.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positive thinking scal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4), 767-784.
- [16] Y. J. Song. (2013).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Dong-A, Pusan.
- [17] A. Y. Kim. (2003). Development of standardized student motivation scale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15(1), 157-184.
- [18] W. H. Jun. (2016). Trait anger, anger expression, positive thinking and gratitud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1), 28-36.
DOI : 10.12934/jkpmhn.2016.25.1.2
- [19] Y. O. Nam & M. H. Choi. (2015).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intelligences, academic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3), 623-629.
DOI : 10.13065/jksdh.2015.15.04.623
- [20] G. O. Jung. (2012). The effects of dental-hygiene students' goal achievement orientation on their self-efficacy and major adaptation and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2(1), 167-177.
- [21] J. M. Lee. (2019). Investigating Predictors College Adjustment of Freshme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 415-425.
DOI : 10.21742/AJMAHS.2019.01.42
- [22] S. H. Kim & S. Y. Park. (2014).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577-1565.
DOI : 10.5762/KAIS.2014.15.3.1557
- [23] Y. H. Kim. (2016).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a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 104-113.
DOI : 10.5762/KAIS.2016.17.11.104
- [24] H. J. Lee, H. J. Lee & M. C. Kim. (2019). The influence of self-reflection on college students using self-directed lear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mentoring and learning strategy.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7(4), 373-391.
DOI : 10.18230/tjye.2019.27.4.373
- [25] S. S. Han, O. S. Kim, Y. S. Joo, E. D. Choi & J. W. Han. (2013). Effects of nurses' mentoring on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43(5), 605-612.
- [26] Y. J. Kim & M. H. Chin. (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mentoring program for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Around the improvement of clinical competen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5(5), 131-139.
DOI : 10.14257/AJMAHS.2015.08.01
- [27] J. I. Kim. (2018).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5), 253-262.
DOI : 10.5762/KAIS.2018.19.5.253
- [28] S. O. Kim. (2018). Influence of positive thinking an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of freshmen in a nursing depart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1), 72-79.
DOI : 10.5977/jkasne.2018.24.1.72

민 희 흥(Hee-Hong Min)

[정회원]



- 1996년 8월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석사)
- 2002년 2월 : 단국대학교 치의학과 (치의학석사)
- 2005년 2월 : 단국대학교 치의학과 (치의학박사)

- 1996년 9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통계, 치과임상, 임상예방처치
- E-Mail : hhmin1@hanmail.net

이 혜 진(Hye-Jin Lee)

[정회원]



- 2003년 2월 : 단국대학교 치의학과 (치의학석사)
- 2011년 2월 : 경북대학교 치의학과 (치의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동부산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예방치위생, 치과생체재료
- E-Mail : onlyhelena@hanmail.net